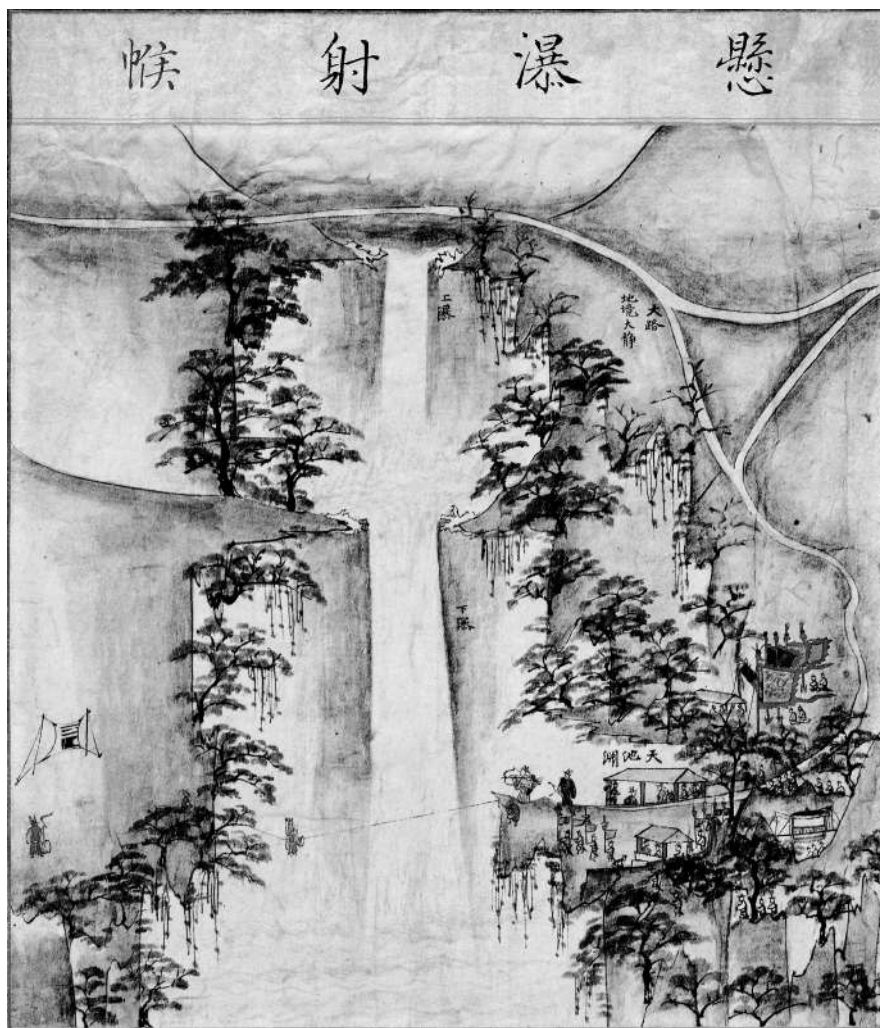


제2장 서귀포 서부

(구·중문면)



서귀포 서부 (구·중문면)

서귀포 서부(구 중문면)의 동쪽은 서호동. 법환동과 접하고 서쪽은 창고천(倉庫川)과 개금내를 경계로 안덕면 창천리. 대평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이다.

그 사이에는 예래천, 중문천, 회수천, 도순천, 악근천, 강정천 등 제주도에서는 보기드물게도 하류에는 항상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색달천, 고지천, 궁산천 등 건천이 북에서 남쪽 바다로 흘러 내려간다.

따라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공간 역시 이들 하천(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1)

- 0. 강정동 유물 산포지, 대포동 바위 그늘 집자리 등은 기원전 500년전부터 기원 전후에 이루어진 유적들이다.
- 0. 하예동, 상예동,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하원동, 월평동 유물 산포지 등은 AD 200년 ~ AD5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유적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귀포 서부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사시대(AD1년 이전)나 원사시대(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서귀포 서부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제주 전 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에는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광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猊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의 속현이었고 그 중 예래현이 오늘날 서귀포 서부지역인 것이다.

1416년(태종 16)에 와서 동.서도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외적 방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1) 서귀포시지 상권(2001. 7. 1) 서귀포시

건의하여 한라산 남쪽 200리 땅을 양분하여 東을 정의현(旌義縣), 西를 대정현(大靜縣)이라 하여 각각 현감을 두어 통치하게 하였으며 대정현에는 예래현(猊來縣), 산방현(山房縣), 차귀현(遮歸縣)을 예속시켰으니 서귀포 서부지역은 대정현 관할이 되었다.

1609년(광해군 1)에 관관 김치(金緻)가 동.서방리 약정(約正)을 설치하였는데 대정현에는 좌면, 우면을 두었으며 서귀포 서부(구 중문면)는 대정현 좌면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귀포 서부 지역내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0.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左面：江汀里, 玆宋里, 下院里, 大浦里, 中文里, 塞達里, 城山里, 上猊來里
下猊來里, 倉庫里

0.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左面：倉川里, 上猊來里, 下猊來里, 城山里, 塞達里, 中文里, 大浦里, 下院里
石宋里, 江汀里

0.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左面：江汀里, 道順里, 下院里, 回水里, 仲文里, 大浦里, 塞達里, 上猊里
下猊里

0. 1899년(광무 3) 대정군읍지

左面：江汀里, 瀛南里, 道順里, 月坪里, 河源里, 上文里, 道文里, 中文里
大浦里, 東中文里, 穡達里, 上猊里, 下猊里, 新猊里

0. 1904년(광무 8)

左面：江汀里, 瀛南里, 月坪里, 道順里, 河源里, 道文里, 大浦里, 上文里
東中文里, 中文里, 穡達里, 上猊里, 下猊里

0.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左面：瀛南里, 江汀里, 道順里, 河源里, 月坪里, 大浦里, 廻水里, 穡達里
中文里, 上猊里, 下猊里

2)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2007). 오창명. 제주대학교 출판부

이 마을 명칭은 오늘날 법정동과 일치한다.

그 후 좌면이 된 후 현재까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0.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좌면 ‘풍헌’을 좌면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 (約正). 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과 서기(書記)를 두었다.
- 0.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관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중문리에 개설하였다.
- 0. 1914년 3월 1일 정의. 대정 양군을 폐하여 ‘제주군’에 통합되었으며 중문동은 ‘전라남도 제주군 좌면’이 되었다.
- 0. 1915년 5월 1일 도제(島制)실시로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좌면’이 되었다.
- 0.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0. 1917년 해안을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개통되었다.
- 0. 1935년 4월 1일 좌면을 ‘중문면’으로 개칭하였다.
- 0.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로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이 되었다.
- 0. 1981년 7월 1일에는 중문면이 서귀읍과 통합되어 ‘서귀포시’로 승격되어 종전의 리(里)가 동(洞)이 되었으며 대천, 중문, 예래,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등 12개동을 관장하게 되었다.
- 0.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가 되었다.
- 0. 2009년 11월 30일 현재 서귀포 서부(구 중문면)의 면적은 143.4km²에 인구는 19,375명이다. 지역내에 법정동이 10개이고 행정동은 3개이며 자연마을은 22개이다.³⁾

3)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 서부지역의 행정동과 법정동>

행 정 동	법 정 동
대 천 동	강정동, 월평동, 도순동
중 문 동	중문동, 대포동, 하원동, 회수동
예 래 동	상예동, 하예동, 색달동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 교육청
 구 서귀포시지(1988. 2. 2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제주도지(2006.) 제주도

1. 중문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중문동(구.중문리), 대포동(구.대포리)과 회수동(구.회수리)과 하원동(구.하원리)등 구.4개리를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중문동사무소

가. 중문동의 설촌유래

동쪽은 하원동 서쪽은 예래동 남쪽은 대포동 북쪽은 회수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마을 서쪽에 중문천제언이 위치하고 있다.

중문동은 400여년전에 중문리 동쪽 ‘웃터(上基)’인 ‘굿물동산(군물동산)’ 일대에 鄭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되었다고 하며 그 후에 南平文氏, 李氏, 高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중문동의 옛 이름은 ‘중문’으로 한자 표기는 中文.仲文으로 나타나고 있다. 1702년의 『탐라순역도』(한라장축)에는 中文, 18세기초 고문서와 『호구총수』(전라도. 대정. 좌면), 『제주읍지』(대정현지. 방리. 좌면) 등에는 中文里(중문마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는 中文村(중문마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는 仲文里(중문마을), 仲文浦(중문개), 仲文院(중문원), 『제주읍지』(제주지도)에는 東文里(동중문마을), 上文里(웃중문마을), 中文里(중문마을),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는 上文(웃중문), 東中文, 中文, 일제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는 中文里, 上文洞(웃중문), 鹿下岫(녹하지마을) 등으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대정현지. 방리. 좌면)에 ‘중문마을은 대정현 동쪽 3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154호 남자는 303명 여자는 431명’이다.⁴⁾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 ‘중문의 연가는 132 호이다. 남자는 272명과 여자 359명을 합하여 631명이고 초가는 200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⁵⁾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현지. 방리. 좌면)에 ‘동중문마을(東文里)의 연가는 71호이다. 남자 136명과 여자 179명을 합하여 315명이고 초가는 180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⁶⁾ ‘웃중문마을(上文里)의 연가는 29호이다. 남자 35명과 여자 35명을 합하여 70명이고 초가는 70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⁷⁾

中文은 ‘중문’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는 ‘중물’이라 하다가 한자 차용 표기로 中文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中文이라는 표기는 19세기 중후반에 ‘仲文’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中文里가 커지면서 上文里, 中文里, 東中文里로 나뉘기도 하였다.

4) 제주읍지(대정현지. 방리. 좌면)

中文里 東距 三十五里 民戶 一百五十四 男 三百三 女 四百三十一

5)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현지. 방리. 좌면)

中文 烟家 一百三十二戶 男 二百七十二口 女 三百五十九口 合 六百三十一 口 草家 二百間

6)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東中文 烟家 七十一戶 男 一百三十六口 女 一百七十九口 合 三百十五口 草家 一百八十間’

7)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上文 烟家 二十九戶 男 三十五口 女 三十五口 合 七十口 草家 七十間’

중문과 동중문의 지역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제연 냇줄기를 따라 물을 중심으로 천제연 웃소부근, 백구부근, 상여계물 부근인 앞거리 두어물을 가까이한 먼내모슬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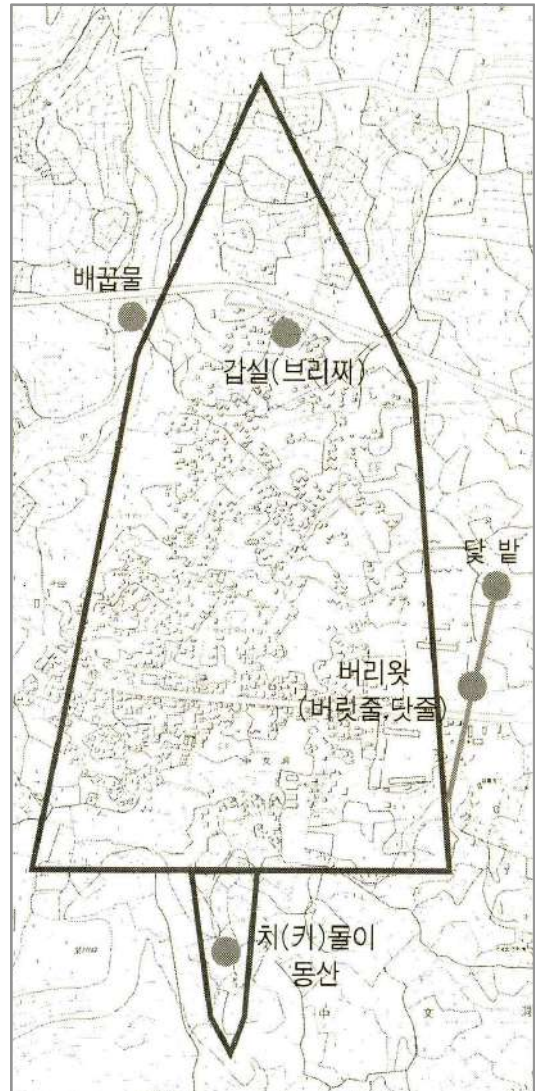
이곳에는 저수량이 풍부한 고인물이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었다. 더구나 산내가 흐르면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었기에 생활용수로 이용하기에 편리했다. 따라서 마을의 설촌은 뜻맞은 사람들 수십가호가 서로 모여 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이 없어 어느 성씨가 설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중문마을의 형성은 예로부터 배형국이라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배의 부분 명칭이 지역 이름에 붙여져 지금도 남아 있다.

배의 이물(머리부분)은 지금의 먼내모슬에 대고 고물(배의 뒷부분)은 바다쪽을 향해서 정박(매인 배) 했는데 선장이 배의 갑실(갑실이 동산)에서 나와 횃대왓(물탱크 서쪽)에 불을 켜고 장기도루(새 중문다리 동쪽)에서 장기를 두는 형상이다.

배의 끝쪽은 죽은 동산이며 치는 치돌이 동산이다. 닷줄은 중문초등학교 동쪽 200미터 지점인 닷밭에 매고 버릿줄은 버리왓(현 중문농협 하나로마트)에 매었다.

군물에 물이 많이 흘러 내리게 되면 배가 물에 떠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마을이 파동된다고 말한 근거가 여기 있



는 것이다.

매인 배이기 때문에 중문사람이 외부에 나가면 활동적이지 못하고 외방사람이 중문에서 활동하면 잘 된다고 한다.

웃중문리(上中里)라는 이름은 대정군 고지(1890년대 후반)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화전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삶을 이어갔는데 화전(火田)은 원시적 농경법의 한가지로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데 녹하지 뒤쪽 일부 움푹밭 일부와 셋단동산의 일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셋단동산(사단동)이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4·3사건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고장의 산간쪽에는 수십 가호가 군데군데 모여서 생활하였었는데 이 지역을 통털어 상문리라 불렀는데 중심은 셋단동산(사단동)인데 인근에는 냇줄기가 뻗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물이 고여있어 이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사단동 일부지역만 경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어 그속에 과거에 사람들의 주거지역임을 말해주는 대나무가 자라고 울타리를 둘러싼 많은 돌담들이 오랜 역사를 지켜주고 있다.

이 지역에 주거가 시작된 것은 매우 오랜 역사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마을의 없어진 것은 4·3사건 때 소개령이 내려지고 가까운 마을이나 친척을 찾아 흩어지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곳에서 살았던 후손들이 지금 중문마을에 몇 가호가 함께 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대정군 좌면 上文里와 中文里를 통합하여 제주군 좌면 중문리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이 되었다.

나. 대포동⁸⁾의 설촌유래

대포동의 옛 이름은 ‘큰개’이다. ‘큰개’는 「탐라 순력도(耽羅巡歷圖)」(「한라장축(漢拏壯軸)」, 「탐라지도(耽羅地圖)」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 등에 大浦村 [큰개마을], 「乾隆 56년



(1791) 8월 일 대정현이정절목(大靜懸鰲正節目)과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제주지도(濟州地圖)」 등에 大浦里 [큰개마을] 로 표기하였다. ‘큰개’에 대해서는 『제주읍지』(대정현지,방리)에 “큰개마을은 대정현 동쪽 3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75호, 남자는 105명, 여자는 193명이다.(大浦里, 東路三十五里, 民戶七十五, 男一百五, 女一百九十三)”, 『삼군호가간총책』(대정현, 좌면)에 ‘큰개’의 연가는 154호이다. 남자 326명과 여자 533명을 합쳐서 859명이고 초가는 223칸이다.(大浦, 烟家一百五十四戶, 男三百二十六口, 女五百三十三口, 合八百五十九口, 草家二百二十三間).라고 하였다.

‘大浦’는 ‘큰개’의 훈독자 결합 표기이다. ‘大’는 ‘큰’의 훈독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큰개’가 사이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19세기후반에 다시 ‘大浦 [큰개]’ 마을로 분리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옛 대포리(大浦里)의 일부(이때 일부는 회수리에 포함됨)를 제주군 좌면 대포리라 하였다. 1981년 중문면이 서귀포시에 포함되면서, 행정구역상 중문동에 속하여

8) 큰갯물지(2001),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대포마을의 성씨별 족보기록을 바탕으로 대포 마을의 형성 시기를 가늠해 본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상으로는 원주 원씨가 처음 대포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 원씨 가문의 고증에 의하면, 시조로부터 14세손인 원효삼(元孝蔘;정미년 1547년생)이 조선 명종 22년(1567년)에 속칭 ‘절터왓’에 정착하였다. 선조 26년(1593년)에 임금의 소환 명령을 받았다. 대포에서 14년 동안 거주하던 원효삼은 임진왜란에 참전하러 위하여 귀향했다. 그러나 전란에 참전했던 원효삼은 1595년에 전사했다. 부인 류씨(柳氏)와 아들 원손(元遜)이 대포에 남아 영구히 정착하게 되었다.

그 근거를 추적해 보면 원효삼 자부(子婦)의 묘가 대포 북동쪽 ‘어둔므르’에 있고, 그 이후의 묘소들도 대포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음을 들 수 있다.

또 원효삼의 아들 원 손이 현재 대포 포구 북쪽 ‘절터왓’에 살다가(1580년~1645년) 1645년 대포동 1572번지로 이주해 왔으며 원 손의 손자인 원취길(元就吉)은 8남 4녀를 낳아 부를 누리며 취락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고부 이씨(古阜李氏) 가문의 고증에 따르면, 시조로부터 18세손인 이세번(李世蕃)이 중종 때 기묘사화(1519년)로 제주에 유배, 대정읍 신도리 속칭 ‘신물’에 정주하면서 가문을 번창시켰다.

입도조의 5세, 시조로부터 23세손인 이 감(李臧)이 1650년을 전후하여 대포로 건너와 대포 포구 동쪽 약 1Km정도 떨어진 속칭 ‘소동이터’에 자리를 정하고 5남을 낳아 살았다. 24세손인 이응원(李應元)의 5형제는 장성하여 나무를 하러 다니다가 중문과 회수리에 살기좋은 터가 있음을 알고 그 곳으로 이주해 갔다.

오늘날 중문의 고부 이씨 집안을 ‘갯집’(포구동네에서 이주한 이씨 집안), 회수에 거주하는 고부 이씨 집안을 ‘큰굴왓집’(동굴왓에서 이주한 이씨 집안)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씨 집안에서 처음 대포에 터를 잡았다는 ‘소동이터’는 지세가 험하여 내왕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농토가 척박하여 ‘동굴왓’ [東谷員] 으로 옮겨 살았

다고 한다. 회수는 ‘큰굴왓집’ 유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지금의 대포동 포구 북동쪽과 북쪽, 대포동 포구에 있었던 ‘큰갯물’ [大浦水] 주변에 흩어져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한편 ‘동골왓’ 남서쪽에 ‘소동이터’ [小童伊處] 가 있는데, 이씨가 이 곳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한편 이 곳을 옛날 어린이들의 놀이터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원주 원씨 뒤를 이어, 김해김씨(중손 김택춘)가 1660년 무렵에, 고부 이씨(중손 이창근)가 1679년에 각각 대포에 정착했다.

1700년대 초에는 풍천 임씨(任氏, 중손 임순학), 진주 강씨(姜氏, 중손 강성택), 평택 임씨(林氏, 중손 임장춘) 집안이 이주해 왔다.

뒤를 이어 1737년에는 김해김씨(중손 김창후), 1740년경에는 제주 고씨(중손 고계환) 집안이 대포로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크게 형성되었다.

위의 설촌 유래는 현재의 성씨 후손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큰개’마을은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설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포 마을의 설촌을 뒷받침할 만한 고증 자료가 빈약하여 정확한 설촌 유래를 밝히기는 어렵다.

금번 대포 향토지 발간을 위한 각 성씨별 유래를 수집하여 열람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원씨(元氏),이씨(李氏),김씨(金氏),임씨(任氏),강씨(姜氏),임씨(林氏),고씨(高氏) 가문에서 제출한 자료(족보)를 통하여 어렵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대포 마을의 설촌은 대략 1580년대로 추정된다.

그 밖의 성씨별 수집 자료는 입촌 내력의 연대가 늦을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고증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고 애매하였다.

대포 마을의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제시한 원주 원씨와 고부 이씨의 족보 자료이다.

특히 원주 원씨 14세손 원효삼이 대정읍 보성리에 거주하다가 ‘해상 교통(귀항하는 해상로)’이 편리하여 장래성을 인지하여 대포포구에 정착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인가(人家)를 의지한 정착이 아니라 자연과 교통을 참작한 이주로 짐작된다.

그리고 대포라는 명칭도, 원씨 집안은 설촌 당시부터 '대성(大成)'의 의미로 '큰 개(大浦)라고 불렀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 회수동⁹⁾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하원동 서쪽으로는 색달동 남쪽은 중문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마을 동쪽에 동해방호소가 있었다.

조선조 정조시대에 대포리 거주 이씨가 처음 들어온 후 50여 세대가 추가 이주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사



람들은 물에 대한 갈망으로 마을 이름을 '도래물'이라 칭하였다고 하며 이후 1801년에는 101가구로 대촌을 이루었다.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 의하면 '구동해소(臼東海所)/옛동호소',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구동해(臼東海)/옛동호, 동해촌(東海村)/동호마을', 『대정군읍지』(대정군지도)에 '도문리(道文里)/도래물마을' 일제시대의 지도에 '회수리(廻水里)/도래물마을, 동회수(東廻水)/동도래물'등으로 표기하였다.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좌면)에 "도래물"의 연가는 46호이다. 남자 147명과 여자 155명을 합하여 302명이고 초가는 150칸이다. "(道文,火因家四十六戶,男一百四十七口,如一百五十五口.草家一百五十間)"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주로 '도래물'이라고 한다. 『세종실록』(21년 윤 2월 임오), '동해소/동호소'의 기록과 『신동국여지승람』(권38,대정현,관방) '동해방호소(東海防護所)/동호방호소'의 기록으로 볼 때 1510년에 '더내'(지금의 강정)에 있었던 '동호'방호소를 지금의 '회수'지경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동해(東海)는 '동호'(盆동호

9) 서귀포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분 ‘신함,상;27’)의 음가자 결합표기로 ‘동이’의 옛말이자 제주도 방언이다.

월평동과 강정동 사이의 냇가에 있는 ‘동호물’(민간에서는 ‘동이물’이라고 한다) 하류에 있는 개를 ‘동호개’ 혹은 ‘동호물개’ 라고 있는데 이 위쪽에 ‘동호방호소’가 있었다.

1510년에 ‘더내’ ‘가내(加內)’에 있었던 동해방호소를 지금의 회수지경으로 옮기면서도 ‘동호방호소’라 하였고, 이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동호마을’ ‘동해촌(東海村)’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마을의 옛 이름은 ‘도래물’로 불리던 샘 주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래물’이라고 하였고 한자로 회수(廻水) 또는 도문(道文)으로 표기하였다.

회(廻)는 ‘돌-’의 혼독자 표기, 도(道)는 ‘도’의 음가자표기, 수(水)는 ‘물, 물’의 혼독자 표기, 문(文)은 ‘물, 물’의 유사음 ‘문’의 음가자 표기이다. 도문(道文)은 좋은 뜻의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도문리(道文理)라 했으나 1910년경에 민간의 음성형을 혼독자로 표기한 회수(廻水) ‘도래물’ 로 바뀌었다.

‘도래물’은 ‘돌아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때에 옛 대정군 좌면 회수리(廻水里)와 대포리(大浦里)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면 좌면 회수리(廻水里)라 하였다.

동회수(東海水)는 ‘동도래물’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회수’ 동쪽마을을 이른다. ‘동도래물’, ‘동회수(東廻水)’ 가 있다는데서 유래하였다.

라. 하원동¹⁰⁾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도순동 서쪽으로는 중문동 남쪽으로는 월평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천년고찰인 법화사와 영실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하원동의 옛이름은 居玉岳(龜岳>窟山峯>屈山峯)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라는데서

10) 하원향토지(1999),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岳洞(오름골)’ 혹은 ‘岳洞村(오름골마을)’이라고 하였다.

한자 표기 岳洞은 말 그대로 ‘오름골’의 한자 차용 표기이며 岳은 ‘오름>오름’의 훈독자 표기 洞은 ‘골’의 훈독자 표기이다.



18세기 중후반부터 下院里(하원리)라 하였으며 下院은 ‘알원’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19세기 중엽(1851년)부터 河院(하원)이라 하였다.

하원동의 설촌은 700여년전 법화사가 창건되었을 때 부터라고도 하는데 1408년(태종 8) 2월 정미조에 법화사 노비수가 280인이라는 사실로서 인근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는 찾을 길이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그리고 성씨별 입촌사를 조사한 결과 1600년대초(350여년전)에 ‘여가빌레(呂哥磊)서쪽에 順興 安氏가 한림읍 귀덕리에서 입향하였다고 추정되며 1670년경 慶州 金氏가 대정읍 하모리에서 입향하였고 1700년경 晋州 姜氏가 강정동에서 입향하였으며 全州 李氏도 제주시에서 입향하여 정착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여러 성씨들이 본 마을에 입향하여 정착하고 있는데 1720년경 光山 金氏가 구좌읍 하도리에서 입향하였고 軍威 吳氏도 남원읍 의귀리에서 입향하였으며 忠州 池氏도 안덕면 화순리에서 입향하였다.

1760년경 海州 吳氏가 대정읍 인성리에서 입향하였고 1770년경에는 古阜 李氏가 대포리에서 입향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성씨들이 1800년대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입향하였다.

앞에 적은 하원(下院)이란 리명을 쓰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본다.

제주목 관아에서 촌락을 지역에 대한 지형이나, 목·현 등 관아의 필요에 의해서 명명되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마을 이름자에 원(院)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볼 때 가까운 예로 그 당시 중문원(仲文院)이라는 역참을 중문과 회수 사이에 설치하여 목사 또는 중앙에서 파견한 “안무사”, “관찰사” 등이 지역 실정을 살필 때 쉬어가며 묵는 여관 구실을 하던 곳으로 보아서, 남사록에 보면 존자암도 역참 구실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법화사도 “법화원”이라는 명칭은 원(院)으로 일시 쓰였던데서 오는 원(院)자가 아닐까 한다.

제주목을 상으로 볼 때 산 넘어 아래쪽 “법화사”를 하원(下院)으로 보는 개념에서 하원(下院)이란 리명(里名)을 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화원 이후에 중문원(仲文院)이 중문리에 개관되는데서 역참의 구실을 위한 존자암을 상원, 법화원을 하원(下院)으로 하는 방향에 따른 구분으로서 아래 하(下)자를 쓰고 역참 구실하는 원(院)자를 붙여 “下院”이 태어나지 않았는가 한다.

“雍正 午年下院里 鄉徒坐目” (西紀 1727年)

“용정 오년하원리 향도좌목”

이 자료의 내용중에 하원리(下院里)라는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마을 이름을 찾는 기록중에서 가장 오랜 사실이 되며 하원리 호적중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조들의 이름과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에는 이름 밑에 우일수, 청주일본 정목일필 등의 기록으로 보아서 어떤 제의(祭儀)에 쓰일 물품을 부담하여 제공한 것을 년차순으로 기록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강부웅(姜富雄) 강씨 입향조(큰산목묘)

김최량(金最良) 광산김씨 비드르물묘

김운회(金運灰) 김최량의 자

이 우(李 雨) 전주이씨 입향조(색달)

안일제(安日第) 하원 호적중초 1권 631쪽

제9통 3호의 안종구(安宗丘)의 祖父

조세강(趙世江) 호적 중초 1권 68쪽 조인태의 부, 남원

현도웅(玄道雄) 현귀현의 부. 67세 함덕 중초 1권 89쪽

“용정 12년 8월 좌목”에는 전장의 설명 자료후 7년이 지난 기록인데 연호다음에 리명은 없고 주민의 서열이 바뀌고 제외된 이름과 추가된 이름이 사이사이에 끼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볼 때 1702년 이형상 목사의 탐라 순력에서 없던 “하원(下院)”이 25년이 지난후에 처음 기록됨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의현과 대정현과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마을로써 도보 또는 말로 행차하는데 필요한 역참으로서의 위치와 법화사가 그 역참으로의 역할을 잠시나마 했다는데서 오는 “원(院)”자가 들어간 마을이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이 형성되어진 근원은 무엇이었나를 볼 때 법화사, 동해방호소, 구산봉대, 점마청, 법화과원 등의 사찰 및 군 주둔지, 군사시설이 되는 봉수대, 팔소장과 연계되는 점마청 등의 기관이 있으므로 해서 사람이 모여살게 되는 근원이 아니었나 추론해본다.

사실 기록으로 서기1408년(태종 8) 2월의 정미조 실록에 보면 법화사 노비수가 280人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승려의 수도 그에 비례하여 많았을 것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이때에는 하원마을 전 지역이 법화사의 둔전일 가능성이 높다.

태종의 윤허로서 법화사 노비를 30人만 빼고 모두 둔전에 사역하거나, 군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이들이 갈곳이 대부분이 법화사를 중심으로해서 흩어져 살아왔다고 보아진다.

또한 연대와 세기가 바뀌어 구산봉대 뒷 기슭에 동해 방호소가 가내에서 이전해 설치하면서 군주둔지로서 발전하는데 따라 군역에 종사하는 인원과 그 가족들이 방호소 주위에 정착하여 살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구산봉수대는 군 작전상 그 시대에 있어 중요한 군사 요충지의 역할을 함으로

써 사람이 모이게 되었으며 구산봉대 앞에 악동(岳洞)이란 마을이름이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 표시되고 있다.(1702년)

이렇게 볼 때 고려말, 이조초기에는 법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 마을 형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조시대에 와서는 사찰이 쇠함에 따라 사찰주위는 “법화원”이라는 과원을 개설하여 공납하도록 하는 관이 관리하는 과원이 생겨나게 되고, 법화사 남측에 점마청이 개설되어 팔소장에서 생산되는 우마를 점마하는 관청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법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마청이 인근 거리의 위치에 있으며 동해 방호소가 점마청과 인접한 거리이며, 그 앞에 구산봉수대가 있어서 우마의 생산관리하는 팔소장, 점마청과 연계됨을 볼 수 있다.

또 그에 가까이 방호소, 봉수대 등 사람이 모여서 되는 시설 등이 있으므로 자연히 촌락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하면서 초기 촌락형성의 기초가 되고, 점차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촌락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는 시기가 1600년대로 보아진다.

서기 1851년부터는 “하원리(下院里)”가 하원(河源)으로 마을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시대부터 우리마을이 반촌(班村), 문촌(文村)으로 변모하는 시대적 전환기로 볼 수 있다.

하원리 호적중초의 기록에 보면 이름앞에 쓰는 직함이 그 이전(1850년)에는 무관이 대다수를 점하다가 1850년 이후 부터는 문직, 향교직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원리의 “하”자는 글자자체가 ‘아래’, ‘중심에서 떨어진 곳’등의 뜻을 지녔고, “원(院)”자는 1850년 되고서는 역참구실에서 벗어났으며 사찰도 쇠하여서 “원(院)”의 의미가 없어지므로서, 마을의 뜻있는 어른들께서 법화샘과 원두물의 뜻을 담아 음을 같이 하면서 뜻을 고쳐 하원(河源)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대천동

법률 제 3425호 (1981.4.13공포)에 의해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 동의 하나로 강정동(구. 강정리), 용흥동(구. 용흥리), 도순동(구. 도순리), 월평동(구. 월평리), 영남동(구. 영남리)등 5개마을을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대천동의 대천(大川)은 강정천의 큰내(大川)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큰내는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8. 대정현. 산천)에 加內大川(더내큰내), 『탐라지』(대정현. 산천)에는 大加來川(큰덜랫내), 『탐라지도』와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는 大加內川(큰더넛내)로 표기되어 있고 오늘날 지도에는 道順川(도순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가. 강정동¹¹⁾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법환동 서쪽으로는 월평동 북쪽은 도순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용천

11) 강정향토지(1996),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수가 많아 예전에는 벼농사를 지었으며 지금은 강정천 수원지가 서귀포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고 있다.



강정동에 언제 설촌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700여년전 또는 400여년전에 ‘아끈내’ 상

류의 ‘소왕이물(沼旺水)’ 동쪽 ‘고상머들’ 또는 ‘더넛동네’ 일대에 金海金氏, 濟州高氏, 坡平尹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했다고 하는데 이동네에 한때 瑞息病(서식병)이 번져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침을 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결국 고상머들 동네에 살던 선인들이 그 동네를 떠나 지금의 강정동네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정마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도 현재의 강정동네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강정동을 가래현 또는 가래촌으로 불리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강정동 4264번지는 예부터 속칭 ‘대궐터’라 불리어지고 있으며 이곳에는 지금도 옛 건물의 유편으로 보이는 기와조각과 이 지방에서 나오지 않는 대리석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강정동이 가래현(村)으로 불리어졌던 시대는 서기 1300년(충렬왕 26)이전으로 보아지며 속칭 대궐터에서 발견되는 유편들은 옛 가래현 청사의 자취가 아니면 옛 탐라국왕(또는 성주)의 별관이 세워졌던 자취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래현(村) 당시의 선인들이 현재의 강정동민의 조상이었느냐 하는 점은 분명치 않으며 오랜 옛 적부터 강정마을이 계속적으로 존속하였느냐 하는 데에도 많은 의문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강정동 인근에 묘가 모여지고 있는 각 성씨별 강정입주 최 선대

조상들이 현 후손들로부터 10~13대의 조상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후 姜氏, 趙氏 洪氏 李氏 등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강정마을 주변에는 ‘정의논’ 일대(마을 서남쪽부분)에 기원전 200년경쯤에 옛 마을이 들어서 있었고 확인되는 유물로 보아 이 옛 마을은 점차 ‘앞물’ 일대로 주거 지역을 이동하였던 것 같다.

「대정현지(大靜懸志)」,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좌면 강정마을(江汀里)은 동쪽 거리가 47리(里)이다. 민호(民戶)는 96가구이다. 남자는 190명이고 여자는 257명이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강정마을(江汀里)에 대해서 대정현에서의 거리와 민호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비로소 행정적인 마을에 관한 파악과 실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것이다.

고지도(古地圖) 「탐라지도병서」에 의하면, 소가래천(小加來川)·대가래천(大加來川)의 동쪽에는 새수촌(塞水村)이 있으며, 북동쪽에는 고둔촌(羔屯村)과 고둔과원(羔屯果園)이 있다. 그리고 소가래천·대가래천의 서쪽에는 강정포(江汀浦)와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제주삼현도(1),(2)」에도, 「탐라지도병서」와 마찬가지로 새수촌(塞水村), 고둔촌(羔屯村), 고둔과원(羔屯果園), 소가래천(小加來川), 대가래천(大加來川), 강정포(江汀浦),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통 리(里)는 25호(戶) 이상일 때 붙이고 25호(戶) 미만일 때는 촌(村)으로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강정 마을은 그 이전에는 25호(戶)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1709년 이전에는 강정촌으로 부르다가 25호(戶) 이상이 되자 강정마을(江汀里)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소가래천(小加來川)·대가래천(大加來川)의 남서쪽에 강정마을(江汀里)이 나타나며, 소가래천·대가래천의 동북쪽에는 고둔(羔屯)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건륭 60년(1795) 5월 일 강정리 을묘식 호구단자(乾隆 六十年(1795) 五月日 江汀里 乙卯式 戶口單子)」에 의하여 볼때도 강정마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신라때부터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14개 현촌(懸村)이 형성할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17개 현촌(懸村)이 형성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17개 현촌(懸村)을 삼읍(三邑)에 분속시켰으며 강정은 대정현 좌면에 속하게 되었다.

강정마을은 먼저 세종 21년(1439)에 동해방호소(가내관방)가 설치되었다. 이 동해방호소에는 마·보병 군인이 56명 있었다. 이런 군사 방어시설인 동해방호소의 주위에는 촌락이 형성되어, 강정 마을을 이루는 기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동해방호소는 1510년(중종 5)에 현동쪽 45리인 현재 회수동 지경으로 옮겨졌다.

1709년의 고지도상에도 새수촌(塞水村), 고둔촌(羔屯村),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촌(村)이 강정마을(江汀里)로 발전 및 형성되어 갔음을 지리지(地理志)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통해서 명확히 파악되었다.

즉 문헌 기록상의 강정마을 최초기록은 세종 21년(1439)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나. 용흥동¹²⁾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신시가지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도순동 남쪽으로는 강정동과 이웃하고 일주도로에 접하고 있는 마을이다.

용흥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전 윤시번(尹時蕃)이 처음 입주하면서 설촌 되었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내팻- 내밖(川外)’이라 불리어 졌

12)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6), 서귀포시지(2001)

으며 전설에 따르면 설촌 당시 유명한 지관을 찾아 마을의 지세를 살피게 한 즉 남쪽과 북쪽이 매우 허하여 남쪽에는 팽나무, 북쪽에는 천년송(소나무)를 심으라 하여 마치 닭의 우리모양 아늑한 마을로 가꾸어 오다가 소나무는 후대에 벌목하여 배를 지어 바다로 떠났다가 수신(水神)의 동티를 얻어 급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¹³⁾



『탐라지』(대정현. 과원), 『탐라순력도』(한라장축), 『제주읍지』(대정현 지도) 등에 ‘고둔(羔屯)/염둔. 염둔,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해동지도』(제주삼현도) 등에 ‘고둔촌(羔屯村)/염둔마을, 『대정군지도』에 ‘영남리(瀛南里), 월산동(月山洞)/월산골, 고둔(羔屯)/염둔, 궁산동(弓山洞)/활오름골, 세초지(細草旨)/세초마르, 기목동(機木洞)/틀남골’ 등으로 표기하였다.

고둔(羔屯)은 ‘염둔, 염둔’의 차자 표기로 원래 염둔과원이 있었다.

영남(瀛南)은 한라산을 일컫는 영주산(瀛洲山)의 영(瀛)과 남쪽을 뜻하는 남(南)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이름이다.

19세기 중반에 ‘염둔.고둔(羔屯), 내팓/용흥리(龍興里), 중북이왓/월산동(月山洞), 서치마르, 활오름/궁산동(弓山洞), 틀남밭/기목동(機木洞) 등으로 부르던 중산간 마을을 합쳐서 영남리라 하였으며 한 동안은 마을 이름을 신흥동(新興洞)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18세기 말의 『제주읍지』에는 강정리와 도순리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는 행정상으로 강정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4.3사건때 소개령에 의하여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강정리로 내려와 살

13)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P. 32(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았으며 4.3사건이 진압됨에 따라 박두평(朴斗平)씨에 의해 1953년부터 ‘내팻’ 내외 지역에 마을을 재건하면서 현재의 마을로 복귀하여 용흥리(龍興里)라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 용광리(龍光里), 용흥리(龍興里), 영남리(瀛南里)로 바뀌기도 하다가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하면서 대천동에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도순동¹⁴⁾의 설촌유래

도순동은 서귀포 시가지에서 8km 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용흥동, 남쪽은 강정동, 서남쪽은 월평동, 서쪽은 하원동과 이웃하며 동쪽 옆으로 강정천이 흐르고 마을 북쪽에는 녹나무 자생지가 있으며 현재 복원사업과 함께 보호수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도순동의 설촌은 740여년전 속칭 ‘쇠태왓’에서 발견되는 기왓장이 고려 후기에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법화사에서 사용될 기와 등을 구운 가마터로 추정되어 1269년(고려 원종 10)이후에 자연 마을이 설촌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다른 구전은 600여년전 ‘돌송이’ 일대에 利川 徐氏, 全州 李氏, 古阜 李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든마슬 고지세’ 일대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하며 일찍부터 ‘돌송이’ 또는 ‘돌생이’로 불려왔고 한자 차용 표기로 琿宋.石宋(돌송이) 등으로 표기해 왔다.

14)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石(석)은 ‘돌’의 훈독자 표기이고 𨸗(돌)은 ‘돌’의 음독자 표기이며 석을(石乙)도 ‘돌’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宋(송)은 ‘송’의 음가자 표기이다.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는 ‘石宋(돌송이)’,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에는 ‘石宋里(돌송이 마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는 石宋村(돌송이 마을), 19세기의 고문서와 주변의 비석에는 𨸗宋員(돌송이), 『제주삼읍전도』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는 道順里(도순마을), 일제 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는 ‘道順里, 古旨洞(고지세)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¹⁵⁾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에는 ‘돌송이 마을은 대정현 동쪽 4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51호 남자는 90명 여자는 134명이다.¹⁶⁾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는 ‘도순의 연가는 123호이다. 남자 231명과 여자 328명을 합하여 559명이고 초가는 172칸이다.¹⁷⁾

라고 기록하고 있다.

‘돌송이’의 한자 표기인 石宋. 𨸗宋의 표기가 조금 천박하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1858년)에 이르러서 부드러운 이름인 한자 道順(도순)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함풍 팔년 무자식 정월 일 대정현 도순리 호적중초(咸豐 八年 戊子 式 正月 日 大靜縣 道順里 戶籍中草)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1858년(고종 9) 1월 이전에 호적중초에는 𨸗宋里(돌송리)로 표기하였지만 1858년 1월 이후의 호적중초에는 道順里(도순리)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월평마을이 오랫동안 도순 마을에 속해 있었는데 1861년(철종 12)에 와서 분리가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도순동은 행정적으로 대천동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5) 서귀포시지 상권 P. 286 (2001. 7. 1) 서귀포시

16)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

‘石宋里 東距 四十五里 民戶 五十一 男 九十 女 一百三十四’

17)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道順 烟家 一百二十三戶 男 二百三十一 女 三百二十八 合 五百五十九口 草家 一百七十二間’

라. 월평동18)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강정동 서쪽은 대포동 북쪽은 하원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월평동의 옛 이름은 ‘큰벵디’ 또는 ‘드벵디’라고 한다. 월평은 18세기 이전의 고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19세기 중.후반의 지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반부터 독립된 행정마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이전에는 강정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후반의 『제주삼읍전도』에는 大坪里(큰벵디마을), 19세기 말 문헌인 『제주군읍지』(제주지도)와 『대정군읍지』(대정군지도) 등에는 月坪里(들벵디마을), 일제 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 ‘月坪里(월평리), 潺洞(잔굴.잔굴) 등으로 표기하였다.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는 ‘들벵디의 연가는 48호이다. 남자 88명과 여자 113명을 합하여 201명이고 초가는 90칸이다.¹⁹⁾ 라고 기록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들벵디. 들벵디’라고 부른다. 한자 표기 月坪은 고유어 ‘들벵디’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月은 ‘들’의 훈독자 표기이고 坪은 ‘넓은 벌판’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 ‘벵디. 벵디’의 음가자 표기로 들췌 음절 ‘디. 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18) 월평향토지(1992),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19) 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月坪 烟家 四十八戶 男 八十八口 女 一百十三口 合 二百一口 草家 九十間

월평동의 설촌시기는 서기 1854년(철종 5. 갑인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부 이씨(古阜李氏)들이 설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부 이씨들이 월평마을에서 가정 오래 거주해온 성씨중의 하나이며 그들의 입촌시기(入村時機)가 갑인년(甲寅年)과 유사하다는데 근거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설촌은 어느 한 성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고부 이씨들이 설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고부 이씨들과 함께 월평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나 그 이전부터 월평 지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고부 이씨와 함께 월평동 설촌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개별 가구들의 거주연한 등을 조사해 보면 마을이 설촌되었다고 생각되는 갑인년 이전에도 월평동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에는 개별 가구들이 현재의 월평마을과 무그래메, 존골, 동물개 등에 독가로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가구수가 적고 분산되어 있어 마을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부 이씨들과 다른 성씨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이후에 비로소 마을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고부 이씨들은 마을에 들어와 서바달(西半月)일대를 모두 차지하였으며 마을의 형성 초기에는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마을이 설촌된 해라고 생각되는 갑인년은 지금부터 139년전인 서기 1854년인 것 같다. 월평마을의 도갑에 보관되어있는 호적중초로는 지금부터 101년전인 서기 1891년(광서(光緒) 17년)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도순리(道順里) 도갑에는 지금부터 131년전인 서기 1861년(함풍(咸豐) 11년)의 월평리 호적중초가 보관되어 있다.(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월평리 호적중초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서기 1855년(함풍 5년)의 도순리 호적중초에는 함풍 11년 월평리 호적중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중 절반 이상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서기 1861년(함풍 11년)에 월평마을이 도순리로부터 분리 되었음을 의미한다.(월평리 호적중초가 도순에 보관되어 있는 이유도 월평이 원래 도순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2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고부 이씨들과 여타의 성씨들이 월평으로 이주한 것은 갑인년이며 그들의 이주를

계기로 2~3년 뒤에 월평마을이 도순으로부터 분리, 설촌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부 이씨들이 도순에서 월평으로 이주할 때에 숙질간이 이주했다고 구전된다. 호적증초를 통해 살펴보면 이 숙질은 종욱(宗旭)과 경실(慶實)이다.

숙부인 종욱은 경실보다 나이가 5살 아래였으며 월평에 오래 거주하지 않고 다시 도순으로 돌아간 듯 하다. 그리고 경실도 이주 당시에 이미 나이가 60이나 되어 실질적인 설촌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실제로 설촌이 이루어진 것은 경실의 아들대에서다. 경실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으며 그들은 각각 혁빈(赫彬), 중빈(仲彬), 항빈(恒彬)이다.

이중 중빈(仲彬)이 이주 당시에 도순에 남아 있었으며 월평으로 오지 않았다.

장남인 혁빈(赫彬)은 이주는 함께 하였으며 자식 세대까지는 월평에 살았으나 그 이후에 다시 도순으로 돌아가 현재 월평에는 그의 후손 두 가구만 살고 있을 뿐이다.

고부 이씨들에 의해 실제적인 설촌 조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항빈(恒彬)(제주 입도조인 世蕃의 11세손)이다. 별도 하루방이라고도 지칭되는 그는 월평에 이주한 뒤 마을설립에 노력하다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다.

과거에서 낙방한 그는 월평으로 돌아왔으며 묘소는 상예리(上猊里)의 서별지(西別池) 북쪽에 있다.

현재 월평에 거주하고 있는 고부 이씨는 대부분 그의 후손이다.

지금부터 130~140년전에 사람들이 월평마을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생산기술의 발달이라는 이유가 있다.

원래 월평마을의 토지는 수분 함유량이 많고 찰흙에 가까워 밭농사로는 부적당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설촌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월평지경에 살던 사람들은 농업을 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동물개 부근에 살면서 어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40년 이전까지 밭에서 조 등만 재배하던 시절에 월평마을의 토지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특히 월평에는 역기왓이 많았다. 역기왓은 역기라는 풀이 자라는 밭

이라는 의미로서 늪지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역기왓은 밭농사가 안되는 황무지라는 의미이다. 이 역기왓을 이용하여 농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업기술이 발달되면서 월평마을에도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부터 월평마을의 토지는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토지로 평가되었다.

고부 이씨들이 도순에서 이주하여 온 시기에 함께 도순에서 월평으로 이주해온 성씨로는 晋州 姜氏, 豊川 任氏, 光州 金氏, 金海 金氏 등이 있다.

함풍 11년의 월평리 호적중초에 있는 나머지 성씨들 즉, 진주 강씨, 함덕 현씨, 김해 김씨, 제주 고씨, 옥구 송씨 등은 그 이전부터 월평지경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월평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처의 거주지로 남자들이 이주하여 온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구전된 바에 따르면 안씨 또는 현씨가 가장 먼저 월평지경에서 살았다고 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

월평동은 마을의 형성 초기부터 주위의 마을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마을의 구성원들이 하원,도순에서부터 이주하여 왔을 뿐 아니라 강정과도 유사한 생계방식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월평동과 주위의 세 마을 사이의 관계성은 당 본풀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용준이 채록한 하원당 본풀이에 의하면 (현용준 1980:758-9) 제석 천왕과 신전이 서로 먹는 음식으로 형, 아우를 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돼지고기를 먹는 신전은 동생이 되어 월평,강정을 차지하고, 제석 천왕은 형이 되어 하원,도순을 차지하였다.

이는 양 지역의 생계방식에서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월평과 강정의 본향신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보아 목축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원과 도순의 본향신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경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하원과 도순은 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이며 강정과 월평은 해안마을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생계방식의 차이가 본향신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월평동은 마을 형성 이후 상당기간 동안 독립된 마을로 인정되지 못하고 도순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도순에서 월평동의 호구단자가 발견된다는 사실과 월평동에서 보관되고 있는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주신문 1989년 1월 19일자 4Page에는 월평동에서 발견된 등장의 일부가 번역되어 있다. 그 등장에 의하면 월평동은 매년 특산물로 육지부 특산물과 바다 특산물을 모두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지리적으로 바다에 인접한 월평동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 특산물을 바쳐야 했고 중산간인 도순의 일부로 간주됨으로써 동시에 육지산물의 특산품을 바쳐야 했었다.

월평동이 오늘날과 같은 마을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43항쟁(1948년)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월평동 주위에 소규모의 자연 마을들이 여럿 있었으며 월평동은 지금보다 마을 규모가 작았다. 즉 월평과 도순 사이에는 준골이 있었고 월평의 선창인 동물개에도 사람이 거주했었다,

그러던 것이 4·3사건으로 인하여 마을에 성(城)을 쌓게 되고 주위의 소규모 마을들은 모두 소개하여 마을 안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월평동은 비로소 현재와 같은 규모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14년에 대정군 좌면 월평리와 하원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좌면 월평리라 하였고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 대천동 소속이 되었다.

마. 영남동의 설촌유래

영남동은 행정구역상 현재 강정동에 속해 있지만 토지의 지번은 영남리로 되어 있어 없어져 버린 마을의 자취를 확인해 주고 있다.²⁰⁾

영남마을 안에서 보면 서남쪽은 도순 녹차공장이며 북쪽으로는 어점이

20)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1998) 학림사

악이 동남쪽으로는 고근산이 있고 그 고근산과 겹쳐져서 범섬이 보인다.

이 영남 마을에는 현재 전씨 노인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30여년을 살고 있지만 4·3사건이 있기 전 마을이 융성했을 때는 50여호가 넘는 작지않은 마을이었다.



영남마을은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 없어서 설촌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당초에 영남마을 위쪽으로 몇 호씩 흩어져서 화전을 일구어 생활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영남마을로 모여들었다.

영남마을 출신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에 설촌되었다고 한다. 영남동이라는 지명은 대정현이 있을 당시(조선중엽) 대정현에서 마을이름을 적어 올리라고 하므로 마을의 촌로중에 한학을 한 사람이 ‘영남(瀛南)’이라는 마을 이름을 지어 올렸으며, 그 이후로는 기록에 영남이라고 적고 있다.

기록에 영남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1898년에 있었던 ‘방성철의 난’이다. 화전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이 민란에 영남마을 사람들도 참여를 했다. 일제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영남동은 일제초기부터 하나의 리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있었던 범정사 항일운동 당시의 재판기록에도 영남리가 나오며 특히 1928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생활상태조사:제주도」 에도 중문면을 11개리로 나누면서 영남을 하나의 행정리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 리명은 일제의 패망시까지도 변동없이 통용되었다.

4·3사건 당시의 마을의 상황을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버려서 1948년 8월경에는 16호에 인구 92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이장은 김창헌씨가 맡고 있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

서 영남동은 곧바로 풍비박산이 난다.

영남동에 대한 소개령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948년 음력 10월 20일 경에 마을이 불탔다는 것이다. 4·3사건을 거치면서 영남동은 완전히 폐촌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대부분 피의 희생으로 대가 끊어져버린 집안도 많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린 아기나 유년기의 아동들이었기에 고아로 자랐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강정동이나 용흥,도순,법환 등지로 한두명씩 흩어져서 살았다. 현재는 1970년경 육지부에서 들어온 전씨가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3. 예래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상예동(구. 상예리)과 하예동(구. 하예리), 색달동(구. 색달리)등 구3개리를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가. 상예동·하예동²¹⁾의 설촌유래

21) 예래동지(1993), 예래생태마을(2007),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동쪽으로 중문동 서쪽으로는 군산봉 북쪽은 색달동과 이웃하고 있으며 현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중에 있다.

예래마을은 약2천년전 해안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서가 깊은 마을이다. 고인돌·바위그늘집자리·유물산포지 등 청동기 시대의 선사유적은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적석시설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 민요중 맺돌방아노래 한 구절에 “열내당캐 여배나 들라 칠(七)성같이 벌려진권당 담월같이 다모다드렁 먼데객당 매마저보라” 즉, 열내당캐에 왜놈의 배가 드러오기만 해보아라 도내 각처에



사는 도민(내외친척인권당)이 몰려와서 왜놈무리를 격퇴하겠다는 부녀자까지 단결된 도민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노래로써 임진란 이전 왜놈들이 우리나라 변방을 침공하던 시절 노래인듯하며, 열내당캐가 그 옛날 탐라국(제주도)과 당나라간에 무역하던 천연 양항(良港)으로 (현재도 좋은 어항(漁港)이지만) 추측되는 것은 唐書,東夷傳 耽羅條에 “唐高宗,龍朔初年(西紀 661年) 탐라국주유이도라(耽羅國主儒 李道羅)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입조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도 열내는 1,300년에 이미 부락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고려중엽 삼별초군 (高麗中葉 三別抄軍)이 제주에서 패하니 원(元)나

라가 제주를 100년간 점령(占領)하여 목장십개소장(牧馬十個所場)을 설치(設置)하여 원본국(元本國)에 군마(軍馬)를 진상할 적에 말길(당캐에서 화순쪽으로 가는 옛길)을 통하여 당캐로 반출하였다 하며, 탐라지에 보면 1300년(고려 충렬왕 26年) 안무사 오식(按撫使吳湜)이 제주에 부임하여 동서도 십사현(東西道 十四縣)을 두었는데 그 중 일현이 예래현(猓來縣)이니 그 규모와 영역이 지금의 읍면(邑面)정도일 것으로 보며 지금의 소남집터가 현청터이고, 주위에 창고왓 솔대왓(소매왓) 병막(兵幕) 등이 당시 기관의 터이라고 전하여 오고있는데, 거문절(東寺) 서절터(西寺)등도 당시 불교가 성행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며, 그후 서기1405년(李朝 太宗5年) 현제(縣制)를 폐지하고 제주, 정의, 대정 3군(郡)으로 개편하니 예래(猓來)는 대정군 관할로 들어가고 대정현쪽에 살던 소남집 임씨(任氏)선조 소유지에 군청을 설치하고 대신 현청터는 주택에 주어 서 즉, 교환하였다 한다.



그러나 군청이 이동함에 따라 관속부차를 비롯한 관계 부민들이 따라가고, 또 다른 환경이 불리하였음인지 각기 분산하여 차차 부락이 없어진 것 같다.

예래동의 설촌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참고문헌은 찾을 수가 없으나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처음 설촌은 현재 마을의 동쪽이며 城山岳(속칭 자스름 동산) 동남쪽 속칭 ‘남바치’에 울담과 기왓장, 노리물과 전신당, 晚芝沙(만지사)와 근이술에 울담과 대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지사, 남바치’ 등에 사람들이 살다가 현위치로 옮겨 설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²²⁾

그후 서기 1,600년경 강윤원씨(姜允元(예래동 설립시조, 만지세좌수)이 지금의 상예동(上猯洞)에 입주하고 같은 년대에 경주인(慶州人), 김익공(金諡公), 김행연(金行鍊), 선세(先世)가 명월(明月)에서 지금의 하예동(下猯洞) 앞대속골에 입주한 다음 임정립공(任正立公)이 강택(姜宅)에 입취(入娶)하여 200년간 폐허였던 현청터(지금 소남집터)에 입주하고, 다음 강위보공(姜渭輔公 괴앗집 선조)이 임택(任宅)에 입취입주하고, 다음 김오(金吳), 이양진(李梁秦), 고성정(高成丁), 나장현(羅張玄), 명택(名宅)이 차차 입주하니 대촌(大村)이 되고, 서기 1,750년대에 상예(上猯), 하예(下猯)로 분리되고, 1873년에 당포(唐浦)는 안덕면 대평리(安德面 大坪里)로 편입되었으며 1981년 색달(穢達)을 포함한 예래동(猯來洞)으로써 서귀포시(西歸浦市) 12개동 중의 하나가 되었다.

숙종초 예래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申命圭’의 ‘默齋기(묵재기)’에는 예래를 ‘延來村(연래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猯”字의 한자를 里名에 쓴 것은 년대가 미상하나 ‘猯來’를 ‘열리’로 발음하는 것은 來 ‘ㄹ’이 ‘猯’에 합음되어 ‘열’로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猯來(예래)라는 이름은 언제 어떻게 붙여졌을까 ?

열내당캐는 1,300년전이고 猯來縣(예래현)이라는 글자는 680년전이니 아마도 이때쯤에 里名으로 붙여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풍수지리설로 보아 어떤 고승(高僧)이 지나다가 마을 이름을 물어보니 열내라고 하였다.(이때까지도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내, 물, 산, 개 등이 많이 쓰여져 주위에 창고내, 벗내, 버린내, 중물(후에 중문), 도래물 등으로 미루어 보면 열내가 맞을 것이다.

즉 창고내와 상대적으로 바다쪽으로 열려진 내 일수 있기 때문에 고승(高僧)은

22)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P. 48 (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한참 생각하다가 열내를 한자로 직역하면 개천(開川)이니 발음상 구정물 흐르는 개천이 될 것임을 감득하였음인지 “열내를 그대로 두면 병(病)이 많겠다. 서북쪽 군산상봉(軍山上峰)이 사자형상(獅子形狀)이므로 동남쪽에 보이는 호도(虎島)의 범기운을 막을 수 있으니 열내의 원음(原音)에도 가까운 예래(猓來)라고 하면 병(病)이 없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그대로 되었다 하며 호도(虎島)는 예래(猓來)에서 볼 때 우형(牛形)이므로 예나 지금이나 소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 속칭 불래낭소 부근에서 4~6세기전 유물이 발굴되기도 하였고, 속칭 빌레거리에서 자기가 출토되었으며, 속칭 남밭치 부근에서 불상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런점을 토대로 해서 추정해 보면 4~6세기전에 설촌(設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색달동²³⁾의 설촌유래

동쪽으로는 회수동 남쪽으로는 중문동 서남쪽에 예래동과 이웃하고 있는 마을이다. 색달동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옛 문헌들을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년전 속칭 ‘막은골’이라는곳에 光山 金氏가



처음으로 거주하면서부터 설촌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望巢鷄(망소계)에 金海 金氏가 정착하였고 후에 앞밭이라는 곳에는 慶州 金氏가 군남캐에는 晋州 姜氏와 軍威吳氏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마을이

23) 색달향토지(1996), 서귀포시 지명유래집(1999), 서귀포시지(2001)

커졌다고 하며 마을 이름도 처음에는 塞達(색달)이라 부르던 것이 후에 와서 穡達里(색달리)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본동, 군남동 천서동의 3개 동네로 마을을 이루고 있다.²⁴⁾

색달동의 옛 이름은 ‘막은다리, 막은골’인데 한자 표기로 塞達(색달)이라 하다가 19세기 중반경에 穡達(색달)로 바뀌었다.

『탐라지』(대정현. 산천)에 ‘塞達川(색달천)/막은다리냇내’,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塞達村(색달촌)/막은다리마을’, 『호구총수』(대정현. 좌면)에 ‘색달리(塞達里)/막은다리마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穡達里(색달리)/색달마을’, 일제시대의 지도에도 ‘穡達里(색달리)/색달마을, 牛步岳洞(우보악동)/우보악오름마을, 川西洞(천서동)/넋새왓마을’ 등으로 표기하였다.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에 ‘막은다리마을은 대정현 동쪽 3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37호 남자는 85명 여자는 74명이다.’²⁵⁾

『제주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에 ‘색달의 연가는 110호이다. 남자 105명과 여자 215명을 합하여 320명이고 초가는 103칸이다.’²⁶⁾

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이 색달마을 경내에 살기 시작한 것은 예래현의 설치보다 1,2백년전 쯤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은 ‘들렁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고 색달동 2610번 지에는 기왓장 조각이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근방은 ‘주승케’라 부르는데 主僧(주승)이라 함은 곧 승려를 말함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 곳이 절터가 아니었던가 추측해 보나 입증할 자료가 없어 유감이다.

이 주승케에서 조금 남쪽으로 간 곳의 지명을 ‘절왓’이라 부르는데 지명이 생긴 연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으며 ‘절왓’이란 절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정신당(堂)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옛사람들은 정착하여 살게되면 으레 신당을 설치하였다.

사람이 부족한 힘을 신에게 의지하려는 의존심이다. 즉 신이 있고 신은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4)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P 46(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25) 제주읍지(대정현지. 좌면) ‘塞達里 東距 三十里 民戶 三十七 男 八十五 女 七十四’

26) 제주삼군호구가간총책(대정군 좌면)

‘穡達 烟家 一百十戶 男 一百五口 女 二百十五口 合 三百二十口 草家 一百三間’

정신당의 역사는 아주 오래인듯하다. 옛 어른들 시대부터 누가 언제 설치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고 마을이 생기면서 설치된 아주 오랜 당이라 여겨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 주승케 근방에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에 개여물과 감수물 등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샘물이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바닷가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왜구의 침입도 손쉽게 않았으리라 믿어진다.

1730년대 호조참판(戶曹參判) 김명헌씨가 호근리에서 주승케 고(高)씨 문중으로 장가들고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 때에도 이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명헌씨가 사망한 후 셋째아들이 이 곳을 떠나므로써 이곳의 거주 역사는 일시적이거나 중단되었다가 1850년대 장씨 등이 감수동에 입주하여 옴으로써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600년대에 유지남드르(생수물 북쪽)에 사람들이 입주해 왔다.

이 때부터 신작로 남쪽인 주승케를 알색달리라 불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즉 일주도로 남쪽에서 일주도로 북쪽으로 주거지가 옮겨진 셈이다.

유지남드르에도 몇 호가 살았는지는 모르나 그 곳이 밭들이 작게 조밀한 것으로 보아 7,8호가 거주하지 않았나 여겨지지만 이 역시 수수께끼이다.

그렇다면 김해김씨(金海金氏) 김진업(金振業 金東好의 11代祖)씨가 유지남드르에(1690년) 입주하기 전의 적어도 5,6백년의 색달마을의 주거 역사는 사료를 발굴하지 못하여 그 내력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에 이른다.

1690년이후의 주거 역사이나마 이를 조명해 보고 발전과정과 애환 서린 조상들의 생활상을 밝혀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마을발전의 귀감으로 삼는 길이 될 것이다.

1300년(충렬왕 26) 제주에 14현을 두었을 때 주민들은 한 곳에 집단 거주하지 않고 소수의 호수가 흩어져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색달마을 경내에도 다수의 호수가 거주하였고 촌(村)이란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색달마을을 색달촌(塞達村)으로 불렀을 것이고 즉 예래현 색달촌이다. 색달(塞達)로 마을 이름이 붙여진 연유는 알 수가 없으며 처음에 주승케 근방을 막은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왜 막은골이라 불렀는지 문헌도 없고 전해오는 이야기도 없어 예측하기는 힘들다.

막은골의 글자 색임에 의해서 막을색(塞)자를 써서 색달촌이란(塞達村)이름이 붙

혀진 듯하다. 색달이란 마을이름이 붙여진 과정을 추정해 보면 1200년대부터 제주 연안에 왜구들이 침입이 잦아 제주 사람들에게 인명과 재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런데 색달마을 해안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왜구가 침입하여 상륙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어서 왜구의 침입이 드문 듯하다. 그래서 이곳을 막은골이라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마을 이름이 막을 색(塞) 색달에서 거들 색(穡)자 색달리로 바뀐 원인은 기록도 없고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도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추측하기로는 마을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 글자를 바꾸는 것은 주민의 소원에 의해서 관청에서 승인되어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마을에서 막을 색(塞)자를 쓰면 마을의 발전을 막는다해서 풍요로움을 거둘 수 있는 거들 색(穡)자로 고쳐 쓰겠다는 것을 대정현감에 소원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시기에 김해 김씨 입촌조 김진업(金振業)의 7대조인 김성태(金成兌)씨가 대정현 형방(刑房)직에 재직한 시기로 보아 이 어른이 마을이름 글자를 바꿀 것을 현감에 소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